

모 두 발 언

2019. 7. 9.

금융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1월 16일 이 곳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5월 23일에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00일 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정된 서비스가 6월에 2건, 7월에 7건이 출시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여러분들과 함께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나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II.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의 소회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이 작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아 보이는 이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혁신적 서비스가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고,
투자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고용, 금융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5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Big-Blur)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의 알뜰폰 서비스는 금융과 통신을,
우리은행의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와
농협손해보험의 e-쿠폰 보험서비스는
금융과 유통을 접목한 예입니다.

다음으로, 금융분야에서도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11건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불균형이 해소되어
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빅데이터 · AI ·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등급 산정 서비스,
AI 로보어드바이저의 보험상품 상담판매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2P 주식대차 중개 서비스와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등이 그 예입니다.

네번째는, 신한카드와 BC카드의
QR코드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이 점차 사라지는 것(cashless)에서 더 나아가
카드없는 사회(cardless)로 접어드는 등
결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먼저 출시된 해외여행자 온오프 보험서비스,
모바일 앱을 통한 계모임 서비스 등
국민들의 생활 곳곳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가맹점 정보와 중소기업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Ⅲ.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이러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가급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해
규제 내용 파악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가조건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조건이
핀테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규제의 문턱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 안착·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 투자 측면에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규제를 검토하여
조만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맺음말

오늘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맞아
자그마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100일을 맞이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수많은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 브랜드로 커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6월에는

해외여행자 온오프 보험서비스가 두 개 출시되었습니다.
저도 하나 가입하였습니다.

출시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앱을 다운받으면서,
우리 핀테크가
상당히 많은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 어느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를 흔들까라는
기대와 설렘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